

“격차 심화 악순환 부르는 사회구조 선도적으로 바꾸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터뷰

안철수가 ‘강(剛)철수’로 변한 것은 사실이었다. 국민의당을 강타하고 있는 리베이트 의혹 파문 속에서도 안철수 상임대표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구조적 격차 해소와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플랫폼 정당 구축을 통한 정권 창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곤란한 질문에는 우회적으로 답변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였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고했다. 또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 바람을 만들었고 호남의 민심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 정권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지방 일간지 가운데 처음 가진 이날 인터뷰는 안 대표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리베이트 의혹 파문 등으로 마음이 착잡할 것 같다. 요즘 어떤 심경인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당의 미숙함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총선이라는 큰 선거운동을 치르고 당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제대로 정치를 바꾸겠다’는 약속과 초심은 지켰다.

-김수민 의원은 안 대표가 추천했다.

▲정년 벤처 창업자를 미래대표 후보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방향이 잡혀있었다. 제가 꼭 추천했기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진통 끝에 국회 개원이 이뤄졌다.

▲이번 리베이트 파문으로 국민의당 활약상이 묻혀 아쉽다. 사실 이번 개원은 국민의당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우선 상임위원장에 대한 당파적 이익을 배제하면서 개원의 물꼬를 텄다. 여기에 국회의장 자유 투표와 세비 반납 카드 등을 통해 더민주와 새누리당을 효과적으로 압박, 22년 만에 가장 빠르게 개원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현실이 심각하다.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빈부·세대·남녀·지역·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까지 격차가 심각하고 서로 악순환 고리로 연결돼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지 않으면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는 선도적으로 해결해 가겠다.

-경제 문제의 단기적 해법을 제시한다면.

▲당장 현안으로 닦힌 구조조정이 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중장기적인 해결책도 낼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일단 정부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재원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 이는 전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정부는 벗어날 수 없다.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푸는 것이 정당하다. 규모가 크다면 공적자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방법을 정하면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자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다.

-중장기적 해법은.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 등 3대 혁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축적’이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카피해서 쫓아갔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과학기술·교육·창업혁명

사회 구조 개혁 필요해

개혁 논의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집착해선 안돼

지방분권·기본권향상 최우선

국민 동의 구해야

”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재도전 못하게 하고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의 경험은 성공의 요람이 아니다. 실패의 경험은 자살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축적의 문화가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문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개혁론에 대한 입장은.

▲개혁은 필요하다. 30년이 지났다.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제외하고 권력구조

개편으로만 접근하면 개혁은 쉽지 않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나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만드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권력구조 얘기만 하면 거기에 매몰된다.

-내년 4월 재보선이 대선의 변수로 꼽힌다. 승리 전략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통해 수권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38석의 소수정당으로 집권이 가능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소수당으로 집권했다. 지금도

가능하다. 양 극단은 변화하지 않는다. 양 극단이 집권하면 통합이 안 되고 분열된다. 그래서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고 있다. 양 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힘을 합쳐서 난관을 헤치고 가야 한다. 저희는 핵으로서 플랫폼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 아닌가.

▲민심의 요구다. 방법을 달리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혁할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 민심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가능하다. 권력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시대정신을 어떻게 보나.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다. 4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당선된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힘들었고 위로가 필요했다. 지금은 힘들음을 떠나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위로는 구제적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는 우려되고 있다.

-안철수 사당화 비판도 있다.

▲물론적이라며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당은 나의 기득권을 위한 정당 아니다. 외연 확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손학규 전 대표의 하산이 압박한 것 같다. 외연 확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대선 주자로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합리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하자고 공식 제안한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승민 의원이 합류할 수 있다고 보나.

▲원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는 함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등에 대한 생각은.

▲그것도 여의도적 시각이다. 권력구조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국민이 왜 3당 체제를 만들어줬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3당 체제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후에 적절한 수단을 찾는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나 3자 구도 등은 차후의 문제일 뿐이다.

-‘반기문 바람’에 대한 입장은.

▲남은 임기 동안 업적을 더 쌓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 다음은 본인의 판단이고 선택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안 대표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대선주자들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신념이 담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무다. 신념이 담기지 않은 암기식 공약, 전문가 공약으로는 안 된다.

-호남주도 정권 창출론에 대한 견해는.

▲호남 민심이 주도해서 국민의당 기반을 만들었다. 호남 민심은 이를 토대로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으로 성장,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주문하고 있다.

-호남 소외 극복 방안은.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를 통한 통합이다. 거기에 지역은 물론 빈부, 남녀 격차 등 모두 다 담겨 있다.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영남 패권주의에 대한 입장은.

▲사회 곳곳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원 법안으로 제출했는데, 여야에 당론 발의를 할 생각이 없는지.

▲그렇게 하겠다. 국민 통합과 협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만 원내 논의를 먼저 거치겠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면 방향

장기요양 · 수술후 재활 · 암케어병동 · 치매 · 중풍 · 집중치료실 · 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 · 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